

저가 항공기 잇단 안전사고...불안한 승객들

광주공항 출발 티웨이항공기 활주로 이동중 기체결함 램프리턴

이스타항공·에어부산 등도 사고...예방 정비·사전관리 미흡 지적

저가 항공기 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광주·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저가 항공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공항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광주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려던 티웨이항공 907편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기체결함이 발견돼 램프리턴을 했다.

해당 여객기는 정비를 마치고 오후 4시 50분께 광주공항을 이륙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해당 항공사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 항공 측은 해당 여객기가 활주로로 향하던 중 기체에 이상이 발견돼 램프리턴을 했으며 정비를 마친 뒤 애초 탑승자 167명 중 155명을 태우고 다시 출발했다고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이스타항공 기장 A씨는 인천을 출발해 청주로 가는 항공기를

조종하면서 비행기가 이륙한 뒤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에게 도어 핸들을 잠게 한 뒤 비행하기도 했다. A씨는 결함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가항공기의 안전 사고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등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지난 8월 21일에는 에어부산의 B737-400 기종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유압액이 유출돼 활주부가 일시 폐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8일에는 김포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에어부산 B737-500 기종 1대에 서양력을 높이는 장치인 플랩(Flap)에 문제가 생겨 운항 예정이던 10편의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기도 했다.

제주항공도 지난 2011년 10월 엔진터빈 균열 내용과 점검내용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적발됐으며, 티웨이 항공은 2011년 12월 보조동력장치 오일 누유(Oil Leak)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예방 정비와 사전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객들 사이에선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안전 관리 등 단속 강화 뿐 아니라 기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붉은 장미의 유희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31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저수지 장미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요양원 입원 앞둔 70대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장애 남편 목졸린 흔적

지난 30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에서 이모(76)씨와 아내 조모(73)씨가 각각 거실과 작은방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목이 졸린 흔적과 함께 양발이 끈으로 묶인 채 발견됐으며, 조씨가 숨져 있던 작은방에선 극약 4통도 발견됐다. 이씨는 40여 년 전 자택에서 발생한 화

재로 양쪽 팔과 오른쪽 귀를 잃은 상태로, 최근까지 요양보호사와 아내 조씨의 간병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서울에 있는 자녀들과 논의 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정리한 뒤 오는 6월 30일 이전에 부부가 함께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결정돼 있었다. 이씨의 유족들도 경찰에서 "(조씨가) 울

해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였다"며 "더 이상 병간호를 하지 못하겠다. 죽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랜 기간 남편의 병간호를 해오던 조씨가 남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 비하 글 올린 '일베' 회원 2명에 실형 선고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옥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 해질 19:41 | 달 뜨기 18:14 | 달 지기 04:20

무더위 지속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지역	구름량	16/30	보성	구름량	12/29
광주	구름량	16/30	보성	구름량	12/29
목포	구름량	16/24	순천	구름량	15/30
여수	구름량	18/25	영광	구름량	14/27
나주	구름량	15/31	진도	구름량	14/25
완도	구름량	16/27	전주	구름량	16/31
구례	구름량	11/32	군산	구름량	15/26
강진	구름량	15/29	남원	구름량	14/31
해남	구름량	14/29	홍산도	구름량	15/20
장성	구름량	14/29			

지역	방향	파고(m)	시간	
서해	남동~남	0.5	남~남서	0.5
남부	남동~남	0.5~1.5	남~남서	0.5~1.5
남해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서부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생활지수	수면	운동	빨래
30	30	50	90

날짜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날씨	☁	☁	☀	☀	☀	☀	☀
기온	15/26	18/31	16/31	18/29	17/30	18/30	18/30

'불볕더위'에 영산강 지류 곳곳 녹조현상

30도가 웃도는 불볕더위가 지속하면서 영산강 지류 곳곳에서 녹조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나주시 구진포 인근 영산강 지류와 영산강과 황룡강, 봉황천의 합류 지점 등에서 1주일 전부터 녹조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5월에 녹조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환경당국은 최근 지속한 불볕더위를 녹조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녹조는 영산강과 지류 하천 합류지점이나 배수문 주변에 집중됐으며, 최근 불볕 더위로 수온이 22도를 넘어선 이후 녹조 발생 지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환경당국은 설명했다. 환경당국은 영산강 본류와 지류 하천에 대한 녹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녹조 발생이 확산할 경우 승선보, 죽산보, 나주댐 등을 방류해 수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기아차, 파업 손실 관련 노조 지회장 등 고소

광주서부경찰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지회장 A씨에 대한 조사는 기아차 광주공장 측이 "지난달 24일 광주공장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주·야간 4시간씩 파업을 진행, 200억원의 생산차질을 불러왔다"고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기아차 노조 측은 "회사 측은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물론, 광주공장 등 노조 지회장 4명에 대해서도 각각 해당 지역 경찰에 고소했다"면서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무조건 '고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두암신탁 자산 2,200억 달성!!
조직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입출금이자유로운 알찬자유예탁금 연 2.10%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탁예금 -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동강대학 동점점 | 두암신탁 본점 (말바우사거리) | 263-0136
두암신탁 울곡지점 (두암중학교 입구) | 264-1232
부영아파트 | 두암신탁 첨단지점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 572-9511

20000

국내 최초 리서치전문미디어
리서치미디어스
www.pollmedia.net

6월 창간예정

국내 최초 입법정책전문미디어
입법정책신문
www.kpbank.net

리서치 정보를 보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리서치전문가들이 만들어가는 리서치 전문버퍼링 매체.
리서치 통합정보서비스와 리서치비평의 새지평을 열겠습니다.

입법과 정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보입니다.
전문가들과 천문기자들이 만들어가는 국내 최초 입법정책 종합전문매체.
입법/정책 통합정보서비스와 입법/정책비평의 새지평을 열겠습니다.

(주)한국입법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4, 신한빌딩 7층